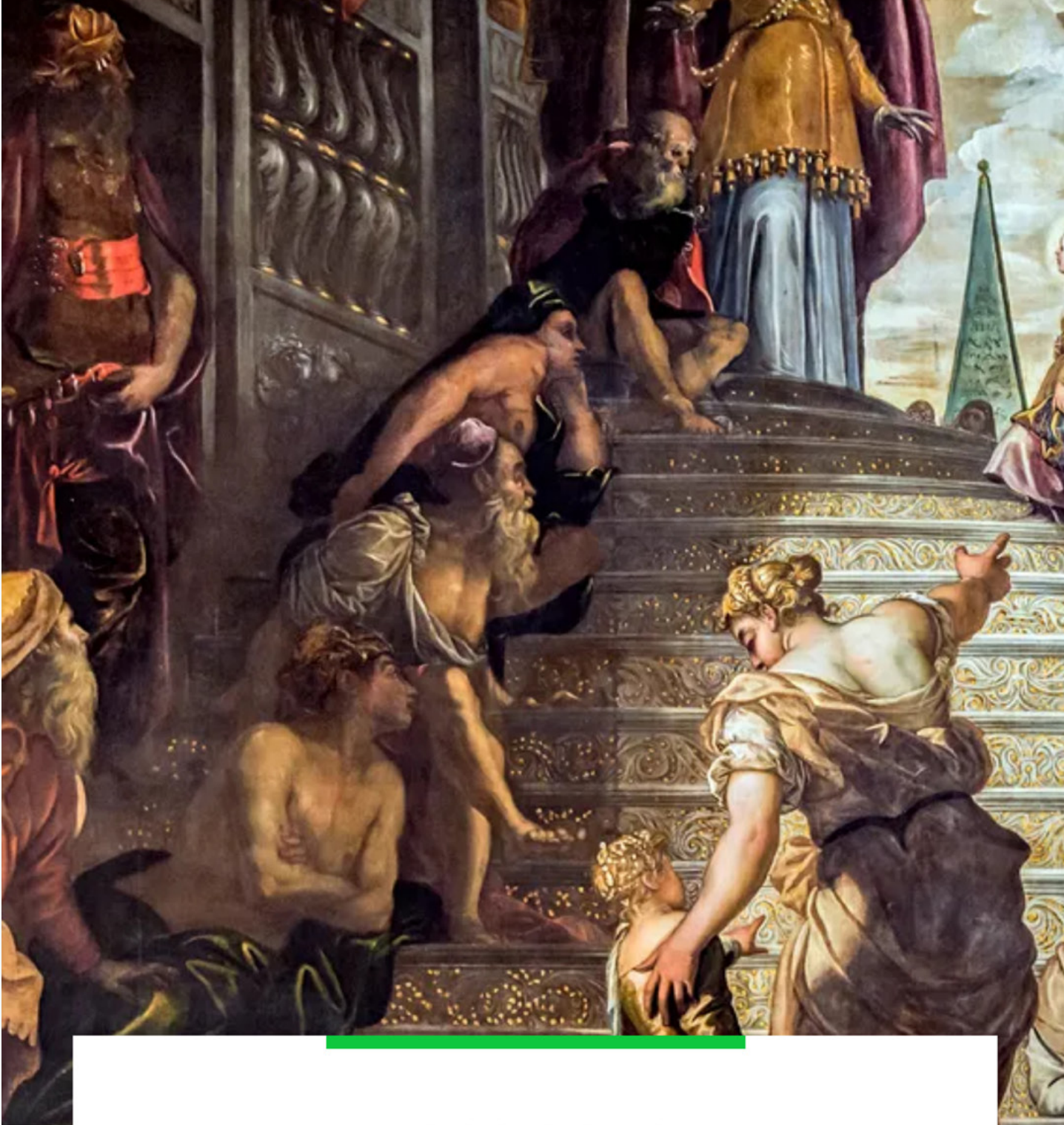




데이빗 영맥주석

야고보서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
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
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야고보서 1장] =====

[약 1: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저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맡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정하시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물려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베드로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교회 수장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초대 교회는 수장이 둘이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야고보가 수장이었으며 영적으로는 베드로가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다투지 않고 매우 지혜로우며 질서적이고 친화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야고보가 자신의 책 서두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1절 상)라고 언급했던 그가 교만해서 자신의 이름을 주님과 나란히 올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주님께 예속되어 있는 종의 신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에비온파(Ebionites)의 이단학설을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아버지와 동등하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깎아 내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비록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학설 또한 이단학설인 것입니다. 주님은 100% 인간이셨으며 100% 하나님으로 사셨습니다. 지금은 100%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일부러 '열두 지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만이 열두 지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도 열두 지파에 속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유대인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일 이 책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이라면 대략적으로 이 책이 쓰여진 때는 기원후 60년 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환란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중에는 적잖은 이들이 스스로 버림받은 자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세상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야 했으며 유대인 사회에서 쫓김을 받아야만 했고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지내야만 했던 기독교인들 마음에는 적잖은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야고보는 저들에게 힘을 돋구기 위해 일부러 '열두 지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향해 "... 문안하노라"(1절)란 말로 자신의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안하다'라는 말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란 단어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불

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 "평안하뇨?"라고 인사말을 하셨는데 "평안하뇨?"라는 말이 바로 <카이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카이레>라고 말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카이레테>로 복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주님은 여러 제자들에게 "평안하뇨?"라고 말씀하셨을 때 <카이레테>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께서 사용하신 <카이로>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글로 남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불안하기는 저들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날마다 절망스런 환경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카이로>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전 5:16] 항상 기뻐하라"

[약 1: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약 1: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약 1: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2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3절)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시험'은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시험', '시련',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이 단어가 '시련'의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시련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 외에도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핍박과 약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들과 친하게 지냈거나 알고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약탈과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도키미온>인데 이는 금이나 은 등을 불 속에서 제련하여 순수한 것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

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당한 고통이 불 속에서 정제되는 과정처럼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인내'라는 것은 '시련'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인내가 없습니다. 극심한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에게서는 더 강인한 인내가 생성됩니다. 인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는 오직 시련밖엔 없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단순히 "인내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야고보가 단순히 고통 당하는 형제들에게 "인내하십시오!"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뺨을 맞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인내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적절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야고보는 고통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4절 상)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온전히'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완성한' 또는 '완전한'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마 5: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비록 기독교인들이 갖은 시련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저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 중 누군가 시련에 넘어지고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아버지처럼 온전해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만 힘이 들어도 넘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강풍이 불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약한 모래성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아버지처럼 온전해지겠다고 작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

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 7: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 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마 7: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 7: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처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처럼 온전해 집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인내하라고 권고하면서 “...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4절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줍니다. 우리가 인내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부족하다’라는 단어는 <레이포>인데 이는 ‘뭔가를 남겨두다’, ‘뭔가 부족하다’, ‘뭔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인내를 잘 하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란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련의 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

족한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항상 충만한 삶입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삶이 것처럼 좋은 것입니다. 이제 인내하시겠습니까?

[약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5절 상)고 권고하였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며 세상 사람에게 자신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스데반이 매우 지혜로왔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그 어떤 뛰어난 학자들도 감히 입을 열어 스데반을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지혜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 6:10]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뛰어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의 하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지혜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을 능가하지 못하고 헬라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전 1: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살아입니다.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

표적'을 구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표적은 사실상 지혜로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기독교인들 수준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인처럼 살아갑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역시 똑같은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많이 다릅니다. 이들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이지만 우리의 지혜는 성령님을 통한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 지혜가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혜 그 자체로 빛날 뿐입니다. 그런 법칙은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일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대인관계에서 빛이 나는 지혜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며 지혜로 사셨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사신 것입니다.

"[마 11: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
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세상의 지혜자들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왜 주님께서 먹기를 탐하는지 이해를 못
했으며 왜 주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이라
는 지혜를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셨
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며 지혜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지혜를 배
우나 그 지혜가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
다. 하지만 주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를 가리켜 아
무짝에도 쓸모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천
되지 못하는 지혜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닙니다. 지
혜는 반드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지혜는 지식일 뿐입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성품이 좋으셨습니
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처럼 됩니다. 주님의 성
품은 지혜로운 자의 성품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
혜로운 자라면 이러한 성품이 당신 가운데 나타
날 것입니다.

“[약 3: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약속의 말을 했습니다. ‘후히’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성실하게’, ‘전심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공개적으로 주십니다. 감추지 않으십니다.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준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매우 성실하게 주시며 전심을 다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구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약 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약 1: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약 1: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6절 상)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6절 하)라고 말하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7절)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 '의심'하는 사람은 주님께 아무 것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황당스러운 말을 했을까요? 도대체 야고보는 무엇을 믿고서 그런 담대한 말을 꺼리낌없이 전했을까요? 우리들 중에 그 누가 의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야고보 자신은 의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던 것일까요?

야고보는 오직 진실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는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때 야고보서는 사멸될 위기를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던 마틴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절대 진리를 굳게 사수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내용이 자신의 주장과 상충되는 것을

발견하고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없애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루터는 야고보서를 없애지 않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는 모습을 최선의 삶을 살았던 마틴 루터조차도 야고보의 강한 어조가 거부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그 자신조차도 야고보의 말 앞에서는 온전히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 나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절대 믿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 앞에서 온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 뿐이십니다. 조금도 의심치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처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자라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의심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야고보가 전했던 '의심'이라는 말은 <디아크리노>입니다. 이 말은 '사이'를 뜻하는 <디아>와 '분리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크리노>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의심하다'란 의미 외에 '구별하다', '판단하다', '결정을 내리다', '흔들리다', '주저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 판단으로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고 구별하며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관습이나 규범이나 전해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 참되고 악한 것을 정의내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되고 우선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를 가리켜 '의심하는 자'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다'라는 말은 <딤후코스>인데 이는 '두 번'을 뜻하는 <디스>와 '마음이나 영혼'을 뜻하는 <프쉬케>의 합성어입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두 개로 나뉘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듯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잠잠하지 못합니다. 늘 이 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야고보는 그런 자를 가리켜 “...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6절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제 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찌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세상도 양다리 걸치는 자를 싫어하는데 어찌 주님이라도 양다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약 1: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약 1:10]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약 1: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

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

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

리라

야고보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9-10절 상)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낮은 자는 주님에 의해 높아짐을 의미하며 그렇게 주님에 의해 부해진 자는 스스로 낮아짐으로 주님의 겸손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10절 하). 그 어떠한 사람도 풀의 꽃과 같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쁘고 화려한 꽃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 없고 볼품없는 들풀의 꽃처럼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꽃이 이내 곧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꽃처럼 빨리 시들어 버립

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해가 돌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11절 상)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이라는 말은 <카우손>인데 이는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 오는 '시로코'라는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시로코'가 불어오면 채소와 식물이 말라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는 바람도 '시로코'와 같아서 이내 곧 말라 떨어지고 맙니다. 화려한 꽃이나 들의 꽃이 바람에 모두 시들어 떨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 시들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11절 하)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쇠잔해질 것을 말하였습니다. '쇠잔하다'라는 말은 <마라이노>인데 이 단어는 '마르다', '멸망하다', '쇠잔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불을 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듯이 우리의 인생도 밤이 될 때 불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높아지고 주님처럼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 년 만 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거북이쳐

럼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거북이도 언젠가는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처럼 허무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낮은 자도 아니며 높은 자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끝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전 7:4]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약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약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
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12
절 상)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잘 참음
으로써 그것을 옳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주님으로
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
습니다. "...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
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12절 하).

그런데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
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13절 상)라고 말하면
서 "...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13절 하)
고 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지에 대해 구

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14절)라고 말하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15절)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라는 말은 <에피뒤미아>인데 이는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욕심'에는 좋은 욕심도 있고 나쁜 욕심이 있는데 인간에게 있는 욕심은 좋은 욕심 보다는 나쁜 욕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고 말할 때 이를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있는 '욕심'에 대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정욕'이라는 단어는

야고보가 사용했던 '욕심'이라는 단어와 똑 같은 <에피뮈미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욕심보다는 나쁜 욕심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좋은 욕심이 있는 사람보다는 나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려는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욕심이 결국은 나쁜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주를 위한 선행이 나를 위한 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를 위한 선행이 그토록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쉽다면 누구나 쉽게 '그리스도의 도'를 터득할 것이지만 예수처럼 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입니다.

야고보는 '욕심'과 '죄'와 '사망'에 대한 관계를 너무나 잘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15절)고 말했습니다. 그 어떠한 '욕심'이라도 그 욕심은 죄를 낳게 됩니다. 비록 주를 위한 선한 욕심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가족을 위한 선한 욕심도 죄를 낳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한 욕심

도 죄를 낳습니다. 모든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며 우리는 날마다 그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죄로 인함이며 그 죄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모든 죽음의 뿌리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죄도 없으며 사망도 없습니다. 이브에게 욕심이 없었더라면 죄도 없었을 것이며 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으로 인해 죄가 왔으며 모든 사람이 이브의 죄로 인해 사망의 덫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롬 5: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약 1: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약 1: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 속지 말라"(16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선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악한 자신이 선한 마귀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을 내려 줍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눈을 보며 좋아하듯이 마귀가 주는 은사와 선물을 좋아합니다. 개들이 눈을 보고 너무나 좋아 꼬리를 치며 온 동네를 뛰어 다니듯 그렇게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은사와 선물을 받으려고 온 인생을 뛰어나닙니다.

하지만 진짜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워낙에 하나님께서 표현력이 없으셔서 너무나 조용히 내려 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아버지로부터 오는 은사와 선물이 마귀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을 때에도 아무도 모르게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
굿간의 짐승들조차 몰랐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
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 내려 오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이처럼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방방
뜨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나 잘 하였
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신의 행한 업적을 떠들고 다니는 분이 아니십니
다. 마귀보다 더 잘 났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십
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와 많이 다르
십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아버지에 대해 "... 빛들
의 아버지..."(17절 중)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빛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서 어둠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야고
보는 하나님아버지를 가르켜 "... 그는 변함도 없으
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17절 하)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입
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우리 모두는 변하는 성

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도 변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마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당장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귀의 형벌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아버지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결심이 변치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변치 않으시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되시니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약 1: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그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 우리를 낳으셨느니라"(18절). 우리는 흔히 예수께서 하나님아버지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

역시 하나님아버지께 '첫 열매'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첫 열매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열매되신 예수님처럼 첫 열매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첫 열매 되셨으니 우리는 첫 열매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이 '첫 열매'의 삶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만아들'처럼 기록한 부분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되십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천지 만물

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 친히 '만아들'이 되셨지만 이제 우리의 '첫 열매'를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첫 열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께 첫 열매로 자신을 드리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첫 열매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였던 율법 중의 가장 확고히 지켜졌던 율법의

하나는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면 사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고 그것이 짐승이면 짐승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곡식이면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레 23:10]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열매'를 드리도록 강력하게 명하셨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지는 '첫 열매'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며 첫 열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약 1: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약 1: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20절)고 말하면서 성내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은 <오르게>로서 '분노', '분개', '진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의 좋은 성품이 아닌 나쁜 성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냄'은 마음 속의 좋지 못한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르게>와 동족어인 <오르가오>는 '득의양양하다', '뽐내다', '흥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처럼 교만하여 득의양양하며 자신을 뽐내며 흥분하는 사람에게서 '성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였던 것은 '성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진노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진노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진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분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진노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고

유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약 1: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약 1: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약 1: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약 1: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약 1: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21절 하)고 말하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22절)라고 권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겨진 도는 곧 '하나님의 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것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그리스도의 도'를 깨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놓은 '그리스도의 도'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고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를 안 다닌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지만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훨씬 생각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물론 학교를 형식적으로 다닌 사람의 경우엔 비록 학교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변화시켜주지 못하겠지만 학교를 다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도'를 깨달은 기독교인과 깨닫지 못한 기독교인의 차이도 다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단순히 도를 듣기만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도'는 반드시 행함으로써 결실이 맺여지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도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성도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둑놈은 여전히 도둑놈으로 남고 있으며 사기꾼은 여전히 사기꾼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어야 할 것이 정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의 시대를 정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23절)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를 지켜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거울이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선명히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날처럼 선명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거울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이내 곧 잊혀지고 맙니다. 행함이 없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이내 곧 잊혀져서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25절 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서 행하는 사람은 너무나 확실하게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여서 그것은 마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25절 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온전히 못한 율법을 듣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온전치 못하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온전한 율법을 지킬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 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약 1: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약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것이니라

야고보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26절)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경건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27절).

야고보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할 때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정도 살면 제법 경건한 삶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때 비로소 완전한 경건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돌아보다'란 말은 <파라킵토>인데 이는 어떤 것을 자세히 드러다 보기 위해 몸을 굽혀서 바라보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충 고아와 과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면밀히 저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매우 면밀하게 고아와 과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저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저들의 고통과 아픔을 잘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아와 과부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단지 우리만 경건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도 경건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바울은 경건한 과부가 어떤 자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이 육십이 넘지 않은 과부 중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린 과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당해야만 했습니다.

“[딤후 5: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육십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딤후 5: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좇은 자라야 할 것이요”

비록 과부라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경건한 과부만이 교

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과부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행실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하길 원하십니다. 단지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멀리하는 소극적인 삶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환난 당한 자를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

[약 2: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약 2:2]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약 2: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약 2:4]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약 2: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약 2: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약 2:7]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

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약 2:8]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약 2: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1절 하)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1절 상). 만일 우리 중의 누군가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이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입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초대교회에서는 사람을 외모

로 취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여 대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에 좋은 자리를 앉게 하면서도 더럽고 가난한 자가 들어 올 때는 아무런 호의를 베풀지 않은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2-3절).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행위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무시하는 가난한 자에 대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5절)고 말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이 땅에서 부유한 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버림받은 자들을 건지십니다. 친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1절 하)라는 말은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사람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다’라는 말이 한 단어인데 <프로소폴렙시아>라는 단어는 ‘편파심’이나 ‘편견’을 가지고서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4절)라고 말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형제에 대한 의심의 생각

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구별하다'라는 말은 <디아크리노>입니다. 이 단어는 '의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과 정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는 '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구별하여 행동할 때에 바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천국을 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 3: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약 2: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약 2: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약 2: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약 2: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10절)라고 말하면서 형제의 외모를 보고서 저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자는 곧 율법 중 하나를 범한 자가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그런데 형제의 외모를 보고서 저를 판단하고 구별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어기는 행위인 것입니다.

"[마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

령이니”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12절)고 말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심판은 곧 우리의 행동에 의해 이뤄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심판이 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둡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말이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소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남편’을 놓고 “당신은 어떤 분을 더 잘 섬기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여인들은 웃어 버릴 것입니다. 대답할만한 질문도 아니며 전혀 가치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답해야만 합니다. 가치가 없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이 질문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대하는 행위가 곧 하나님께 대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에는 법칙

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어길 경우엔 형벌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 법칙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내는 남편 섬기기를 사람이 주께 하듯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없다하여 업신여기거나 부족하다 하여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25:40] 임금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야고보는 “공흘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13절 상)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공흘히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흘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대로 이 세상만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 만물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말을 묵상함으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13절 하)

[약 2: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약 2: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약 2: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참된 믿음에 대해 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14절 상)라고 말하면서 "...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14절 하)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스스로를 구원 받을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말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으며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원에 대한 야고보와 바울의 충돌된 의견은 우리들에게도 큰 충격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상충된 내용은 성경학자뿐 아니라 목회자나 일반 성도들에게도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의 말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야고보의 말도 성경 말씀이며 바울의 말도 성경 말씀임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말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 사람의 말에는 그 어떠한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사람의 말을 하나로

뭉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울의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풍성한 천국의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생각할 때 획일적인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집에서 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복잡하며 훨씬 상급의 체계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전 15: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전 15:41]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위의 구절은 바울이 천국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그가 천국에 대해 언급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해'나 '달'이나 '별'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주를 볼 수도 없으며 은하계를 설명할 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해, 달, 별'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었던 천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말을 통해 무수히 많은 상급과 구조가 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해의 영광은 달의 영광보다 더욱 영광된 곳이며 달의 영광은 별의 영광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곳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매우 복잡하며 무수히 많이 구분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은 마음껏 여행할 수 있지만 어쩌면 천국은 오늘날의 세계와 사뭇 다른 체제를 갖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이 세상보다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잡하고 다양한 상급의 나라인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상급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도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능력을 소지해야만 하듯이 천국에서도 더 좋은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에 상당한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을 하버드대학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곳에서도 일등이 있고 꼴등이 있는 것과 같이 천국에도 좋은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버드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인생이 보장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17절)라고 말했던 것은 행함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서 취할 상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자체가 죽은 것과 같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무런 상급이 없는 천국의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요? 행함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 싫어서 상상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약 2: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

라 하리라

[약 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약 2: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약 2: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약 2: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
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약 2: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
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
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약 2: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약 2: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
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
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약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
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을 구분할 수 없음을 강조
했습니다. 그는 "...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

이라..."(18절 중)라는 말이 전혀 성립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행함은 결코 믿음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없는'이라는 말은 <코리스>인데 이 단어는 '~이 없는' 또는 '~ 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뜻 외에 '~로부터 분리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행함으로부터 분리된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옳은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지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들의 가르침에는 '상급'이 빠져 있습니다. 마땅히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구원'도 가르쳐야 하지만 '상급'도 가르쳐야 합니다. 상급없는 구원은 차라리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자에게는 상급도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집이 필요하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필요한 법인데 어찌 천국에서 벗고 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
김을 받은 것은 그가 행함과 믿음이 함께 했기 때
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 주실 것을 믿었습니
다. 비록 자신의 손으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린
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서 자신의 아들을 살려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
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
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기생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
다 여김을 받은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기생 라합
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일신임을 믿었습
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겼으며
접대하며 안전하게 피신케 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이방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행함이 있습
니까? 당신에게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과 행함이
있습니까? 혹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지는 않

습니까? 혹시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26절)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철저히 하나가 되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서도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으며 상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

[약 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 선생이 되지 말라"(1절 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는 선생이 되는 자에게는 더 큰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제자보다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는 항상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며 누군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보고 스스로 낮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만이 오히려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삶은 곧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마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

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약 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약 3: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약 3: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약 3: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약 3:6] 혀는 곧 불ियो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말하면서 "...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2절)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실수'는 죄와 연관된 잘못입니다. 모든 사람

은 실수를 하며 죄를 범합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롬 3: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통해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혀' 이외에 다른 지체로 죄를 짓습니다.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지으며 몸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혀'를 통해 짓는 죄는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며 생의 바퀴를 불사르기까지 합니다. 야고보는 “..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6절 하)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혀로 인해 지은 죄가 심각했으면 혀로 인해 인생이 불살라질 때에 그 사르는 것이 마치 지옥불과 같다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만큼 혀로 인해 짓는 죄가 크기 때문입니다.

[약 3: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약 3: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약 3: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약 3: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약 3: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약 3: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다른 모든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으나 오직 혀만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7절~8절 상). 야고보는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는 혀를 통해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쉬지 않고 끊임 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8절 하).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사람을 저주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치 한 구멍으로 단 물과 쓴 물이 함께 나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11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저주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지극히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지극히 존경하고 지극히 거룩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결코 그 사람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을 가리켜 "...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 (9절 중)이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상'은 <호모이오시스>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데무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이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곳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첼렘>인데 이 단어는 '형상'을 뜻합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image(이미지)'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외형적인 겉모양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양'은 <데무트>입니다. 이 단어는 '닮음', '같은 모양'을 뜻합니다. <첼렘>이 하나님의 겉모양을 뜻한다면 <데무트>는 하나님의 속모양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첼렘>은 <데무트>를 통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우리 인간도 <첼렘>과 <데무트>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출중한 것은 아닙니다. 외모와 함께 속 사람이 출중해야 비로소 온전히 출중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속사람보다 외형적인 겉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속 사람을 겉모습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속사람이 진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에 이 저주는 곧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에 그 부모가 기분 나빠하며 내게 화를 내는 것

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은 사람을 칭찬하며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입으로 찬송만 흘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11절)라고 말하면서 한 구멍으로 단 물과 쓴 물을 내는 것은 오직 사람의 입밖에는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단 물과 쓴 물을 내었던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앞으로는 한 입으로 오직 찬송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 3: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약 3: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약 3: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약 3: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약 3: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약 3: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나온 지혜의 차이를 구분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시기와 다툼에 의한 것이어서 "이러한 지혜는 ...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5절)라고 말했습니다. '시기'는 <젤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좋은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세상적으로 사용될 때는 좋지 않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려는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의 '시기'는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시기'심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다툼’은 <에리데이아>로서 ‘비열한 본성’, 또는 ‘이기주의’를 뜻합니다. 이는 정당처럼 자기 당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온갖 비열한 짓을 자행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비록 정치하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사회 구조는 이러한 당파싸움이 수없이 퍼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당파싸움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당파싸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당파싸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뭘 몰라서 다투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다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하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잘 다텍니다. 이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적입니다. 긍휼을 베풁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화평케 하는 자이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가득차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자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

[약 4: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우리의 싸움과 다툼은 모두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좇아 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싸움이.. 다툼이..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1절). 이곳에 언급되고 있는 '싸움'은 <플레모스>로서 '전쟁'이나 '싸움'을 의미합니다. '다툼'은 <마케>로서 '논쟁'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싸우고 다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싸움'은 나라간의 보다 큰 전쟁을 의미하고 '다툼'은 사람간의 싸움이나 다툼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싸움과 다툼은 모두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좇아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싸움과 다툼 중에서 세상의 정욕에 의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전쟁도 세상의 정욕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전쟁같아도 속에는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언급되고 있는 '다툼'이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3장 16절에 언급된 '다툼'과 다른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언급되고 있는 '다툼'은 <에리데이아>로써 '당파싸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편을 갈라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못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약 3: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 전쟁을 통해 서로 죽이고 당을 짓고 서로 논쟁하며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적 정욕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세상적 정욕이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약 4: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데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약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 정욕을 취하기 위해 욕심을 내며 살인하고 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2절 상).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정욕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라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데도..."(2절 중). 이것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그것 외에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함이요"(2절 하). 구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얻

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은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 방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그런대로 구해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구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비해 훨씬 피해의식이 심합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피해의식이 많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남편은 주로 이성적입니다. 반면에 아내는 주로 감정적입니다. 이성적인 남편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 남편에게 말을 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다소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얻는다는 것이 스스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말을 안 합니다. 말 대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냅니다. 아내가 뜬금없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는

뭔가 속상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숨은 마음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주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숨은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제 때에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집에 있는 남편보다 더 답답하신 분이십니다. 남편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면 어느 정도 알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화를 내도 짜증을 부려도 꿈쩍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취하신 방식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더욱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간구'에 있습니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며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입니다"(2절 하).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길 원합니다. 제발 남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3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전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세상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구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세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전세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런데 전세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옷을 사겠다고 생각하면서 구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제게 전세금을 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줄로 믿고 전세금에 대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라고 간구를 했다면 이는 세상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에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돌리는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도 "하나님아버지, 제발 제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런 기도는 단순히 의사에게 치유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당신은 의사에게는 돈을 지불하면서 고쳐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는 한 푼도 드리지 않으면서 고쳐달라고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민망할겁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런 기도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심겨야 하는데 몸이 병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를 고쳐주신다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원래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는데 법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기도문 같아 보여도 많이 다릅니다. 단순히 병을 고쳐달라는 간구와 고침 받을 때 주

를 위해 살겠다는 간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뭇 때문에 간구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차례입니다. 당신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만 아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건강하여서 더욱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재정이 풍성하게 해 주실 때에 꼭 건축헌금 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면 꼭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약속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래는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약 4:4]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지 경고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게 되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4절 상). 이는 세상과 벗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4절 하).

세상과 벗하는 삶은 세상을 좋아하는 삶입니다. 만일 당신이 세상을 좋아한다면 이는 당신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과 벗하는 삶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과 벗하는 삶은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세상과 벗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드라마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된 삶입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합니까? 세상과 벗된 삶입니다. 술을 즐기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된 삶입니다. 먹고 마시는 모임에 참여하길 좋아하십니까? 세상과 벗된 삶입니다. 지나치게 세상의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까? 세상과 벗된 삶입니다. 직장과 사업터에 얽매어 살고 있

습니까? 세상과 벗된 삶입니다.

당신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주일이나 겨우 성경을 꺼내드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 보십시오. 교회 모임 때에나 간신히 하나님께 얼굴을 내밀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간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간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이 글을 더 이상 읽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서 당신의 모습을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 보십시오. 당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세상과 벗하고 있는 모습이 많은지 바라 보십시오. 그런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바라 보십시오. 당신이 세상과 벗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계시는지 바라 보십시오.

[약 4:5]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5절)는 말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의 이 말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장 근접되는 성경구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자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대표적인 구절을 들라면 십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야고보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했던 것은 그만큼 성령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밝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그러한 시기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 결코 세상과 벗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기'라는 말은 <프

도노스>입니다. 이 단어는 <젤로스>라는 단어와 함께 '시기'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뜻이 혼용되어 거의 같은 단어처럼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굳이 두 단어를 구분시킨다고 하면 <젤로스>는 시기하는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프도노스>는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껍데기를 벗겨서 내가 뒤집어 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간혹 그렇게까지 시기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정신나간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멋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시기심이 작동합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차를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성령의 시기심에 대해 <프로노스>의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성령님의 시기심이 매우 강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느껴지는 시기심이 아니라 세상과 벗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 시기심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간음하다가 붙잡힌 남편을 쳐 죽이는 여자와 같습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힌 남편을 모든 아내가 다 쳐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런 자를 용서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간음을 안 합니다. 간음할 대상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다 붙잡혔을 때 당하게 될 아픔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는 간음하다 붙잡힌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간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감미롭다 할지라도 절대로 간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라고 내가 왜!!

사람들이 세상과 벗하며 사는 이유는 성령님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이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이유는 아내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살고 있는 남편은 절대로 다른 여자와 간음

하지 않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 방에서 한 침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한 지붕 아래 거하고 있는 정도인지... 그저 단지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한 침대를 사용하는 정도인지...

[약 4: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는 "...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6절)는 말로서 간음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치고 평소에 "나는 꼭 간음하고야 말리라!"고 작정하며 살았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결혼한 후에 꼭 간음하겠다"라고 사명감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싶어"라며 자신이 위대한 간음 나라

의 선지자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는 간음하지 않을거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나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간음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간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들이 그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기 위해 매일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직도 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 같은 할아버지도 간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순간도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이 있는한...

말이 조금 이상할지라도 우리는 간음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보면 간음에 대한 겸손이야 말로 매우 중요한 겸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스로 간음에 대해 교만을 강조하거나 멋있나 품내는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는 간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듯 간음에 자유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아가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약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7절 상)라고 말하면서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인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종하다'라는 말은 <휘포타소>인데 이는 '순복하여 따르라'는 뜻입니다. 이는 순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여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지만 복종은 나의 선택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

종하는 사람을 가리켜 '옥토'라고 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토같은 사람은 무조건 열매를 맺지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하며 언젠가는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 마귀를 대적하라..."(7절 중)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와 "마귀를 대적하라" 사이에 <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데>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복'해야 하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은 마귀가 우리를 피해 달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만 대적하면 마귀가 달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달아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달아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마귀가 달아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편을 간음하게 만든 여자를 쫓아냈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서먹한 것과 같습니다. 비록 간음하게 만든 여자를 쫓아냈다고 할지라도 남편과

의 관계가 사랑스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권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며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순복하지 않는 자녀를 어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순복하지 않는 아내를 어찌하여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마귀만 쫓아내려고 근육을 키우지 마시고 먼저 순복하는 자가 되어서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 4: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약 4: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약 4: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8절 상)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8절 하). 야고보는 우리를 가리켜 "죄인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야, 이 죄인아"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버럭 화를 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버럭 화를 내는 이유는 죄인이 아닌 사람보고 죄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고보의 말에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야, 이 죄인아"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죄인 취급 하십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성결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야고보는 "...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8절 하)고 말하였습니다. '성결'이라는 단어는 <하그니조>인데 이 단어는 주로 '순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는 <하기오스>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 <하기오스 프뉴마>라고 합니다. 이는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기오스>와 <하그니조>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기오스>는 전혀 더러움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의미하지만 <하그니조>는 거룩하기 위해 더러운 부분을 제거하는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그니조>입니다. <하기오스>를 위해 <하그니조>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말은 '정결'과 '거룩'이 포함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깨끗하시며 조금도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 관계에서 깨끗함은 '정결'이며 마귀와의 관계에서 깨끗함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슬퍼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 그리고 눈물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9절 상)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다'는 말은 <탈라이포레오>로서 '비통함을 경험하다', '심한 노고를 겪다',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서 고통을 느끼거나 비참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악된 삶을 인식하며 스스로의 더러움을 보며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통하다'라는 말은 <펜데오>오로서 '슬퍼하다' 또는 '애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울지어다'라는 말은 <클라이오>로서 마음의

슬픔과 고통을 육체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표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러한 '슬퍼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값을 인식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절실히 깨달으며 가슴깊이 통탄함과 비참함을 느끼며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웃음보다는 애통함이 있어야 하며 즐거움보다는 근심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9절 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약 4:11]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약 4:12]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 (11절 상). '비방하다'는 말은 <카탈랄레오>로서 '누구에 대해 험담하다', '욕하다', '중상하다'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비방하는 말로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야고보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 (11절 중). '판단하다'라는 말은 <크리노>인데 이는 '분리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분리하는 행위는 모두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이렇듯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인데 이는 저들이 더 이상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스스로 판단자가 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제를 헐뜯거나 무시하는 말

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 이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경고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12절 하)

[약 4: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약 4: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약 4: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약 4:16]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약 4:17]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하였습

니다. "...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14절 하).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삶을 대충 살고 있다면 당신의 삶이 짧은 것인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삶을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삶이 매우 짧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대충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17절)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을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선'은 <칼로스>로서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는 이 '선'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시 119:68]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야고보의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이 누구더냐?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을 이루는 것이다”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의 삶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 기독교인은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15절)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했습니다. 이는 저들이 그만큼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 저들의 삶이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었을까요? 만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들이 말한 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았더라면 야고보가 “...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수많

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저들은 습관처럼 "주의 뜻이라면 이것 저것을 행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들 스스로 제법 괜찮은 기독교인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저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저들의 그런 말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16절).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은 <알라조네이아>로서 '허풍을 댐', 또는 '자랑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말하거나 원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허풍을 떠는 행위를 말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허풍쟁이이며 얼마나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 않게 허풍스럽습니다. 훨씬 더 교만하며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하루라도 허풍을 떨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풍 떠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는 '내가 허풍장이인가? 나는 아닌데? 누굴 얘기하는거지?'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

람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 허풍장이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문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던 문제가 어찌 지금이라고 덜하겠습니까? 우리는 야고보의 꾸지람을 더 들을 조건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만일 야고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면 얼마나 우리를 꾸짖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말고 직접 행함으로 주의 뜻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말로만 "나는 주의 뜻대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혐오하였으면 저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까지 정죄하셨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 7: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고보서 5장] =====

[약 5: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약 5: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약 5: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약 5:4]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약 5: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약 5:6]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약 5: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약 5: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1절)고 경고하였습니다.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고생'은 이 세상의 '고생'이 아니라 영적인 '고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생은 이 땅에서의 고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고생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야고보의 경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이 결코 고생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함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오늘날에는 부유함이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라면 결코 야고보는 그런 경고의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유함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의 말이 맞는 것은 부유함이 결코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자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에 대해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 19: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신 부자에 대한 언급은 사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부자’는 문자 그대로 ‘부자’였습니다. 물질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가난이 뭔지 모르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으니 진정한 부자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중 그 누구가 그런 부자를 불쌍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 누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까? 부유하고 싶으니까 이토록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님, 진정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실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 것임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진정 주님의 말씀을 사실이라 믿는다면 부자되는 마음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을 읽는 자의 자세이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렸던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처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딤후 6: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딤후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스스로 부하려고 하는 자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

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는 부한 자입니다. 스스로 부하려는 자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로 만드시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유한 자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부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 5: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9절 상)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원망하다'란 말은 <스테나조>로서 '한숨 쉬다', '탄식하다',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동물에게 부상을 당하였을 때 신음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파서 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너무나 큰 문제를 당하였을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탄식할 때를 의미합니
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고 좋지 못한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신음 소리와 함께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남을 저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남을 미
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절대로 원망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
에 대해 원망하게 될 때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
판을 면하리라..."(9절 상).

야고보가 말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
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
판보다 더 크고 무섭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제
를 원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라도 그 문제는 나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믿
어야 합니다. 형제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것이
라고 생각할 때 형제를 원망하게 됩니다.

[약 5: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약 5: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성도들로 하여금 오래 참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래 참은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으라고 권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10절).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오래 참음'입니다. 선지자는 고난을 받은 자들이며 또한 오래 참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고난'과 '오래 참음' 이 두 가지가 겸비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기셨듯이 '고난'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는 자들 또한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몰려 올 때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배워야 합니다.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

니..."(11절 상). 그러면서 야고보는 '옴'을 들어 인내의 본을 삼았습니다. 옴이 인내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옴이 인내함으로 하나님로부터 받은 복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었습니다. 옴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죽은 자녀의 숫자 만큼의 자녀를 더해 주셨으며 잃은 재산의 갑절의 재산을 채워 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사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악한 세력이 옴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옴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악한 세력이 침범치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옴처럼 인내하는 자가 될 때에 옴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언급하였던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메노>입니다. 이 단어는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란 뜻입니다. 이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뛰쳐 나가지 않고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은

참지 못하고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래 참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덕목입니다.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갈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약 5: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 맹세하지 말지니...”(12절 상)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야고보의 말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 5:33]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

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마 5: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마 5: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마 5:36]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헛 맹세'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헛 맹세'를 하지말고 다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자주 헛 맹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헛 맹세'는 지켜지지 않는 맹세를 말합니다. 이는 곧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맹세를 하되 잘 지켜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사람에게 맹세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잘 지키지만 반대로 사람에게 맹세한 것은 대충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에 대한 맹세는 너무나 잘 지키면서도 하나님과 맹세한 것은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 23:18]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마 23:19]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마 23:20]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마 23:21]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마 23:22]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를 말합니다.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세상적인 맹세를 의미합니다. ‘제단’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이지만 ‘예물’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육적이고 혼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물’를 가지고서 맹세하는 것이 ‘제단’과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보다 ‘교회의 담임목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모두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다만 “...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12절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헛 맹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대충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는 그런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말했던 맹세를 잘 지키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정치인들에게 실증이 났습니다. 이런 청지인들을 사람이라 취급도 하기 싫어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정치인들만 이 사실을 모를 뿐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 맹세'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말처럼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역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죄있다 정죄함을 받는 행위'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헛 맹세'가 많습니다. 부모가 제일 '헛 맹세'를 잘 합니다. '헛 맹세'를 잘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헛 맹세'를 배우게 됩니다. '헛 맹세'를 잘 하는 사람은 어쩌면 '헛 맹세'를 잘 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다.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헛 맹세'를 해도 전혀 부담을 갖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비록 맹세를 지킴으로써 많은 것에 있어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피해가 우리의 삶을 짓밟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코 맹세를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를 잘 지키심으로 하나님아버지의 일으키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또한 맹세를 잘 지킴으로써 주님의 일으키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헛 맹세'로 치장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잘 될 것입니다. 훨씬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주님의 행하신 대로 살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 삶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마 5: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약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13절 상)라고 물으면서 "... 저는 기도할 것이요..."(13절 중)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만 당할 뿐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기도하다'라는 말은 <프로슈코마이>로서 이는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말이 이곳에서는 현재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는 한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만이 고난을 끊을 수 있고 막을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끊을 수 있고 막을 수 있으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안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한 "...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13절 중)라고 물으면서 그런 사람은 "... 찬송할지어다"(13절 하)고 권고하였습니다. '찬송하다'라는 말은 <스팔로>입니다. 이는 '찬양하다', '노래하다'란 뜻인데 줄을 튕기면서 노래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형식적으로 감정없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즐겁고 신나는 파티를 즐기듯이 노래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찬송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길 기도합니다. 고난이 없어질 날만 기다립니다. 나무에서 감이 떨어져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겠다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먼저 찬송을 부르십시오. 신나게 노래하십시오. 줄을 튕겨가며 신나게 부르십시오. 그렇게 노래를 할 때에 고난이 사라집니다. 고난은 줄이 있어서 그 줄을 끊어 버리면 고난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고난의 줄은 오직 찬송의 소리로 인해 끊어집니다.

[약 5: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는 병든 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하면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든 의원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의원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가난했습니다. 저들은 예수쟁이로 낙인이 찍혀졌기 때문에 유대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 때 의원의 치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질병 치유를 위해 주신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원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장로'가 의원이었습니다. 의료자격증을 획득한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장로와 똑 같

이 그저 평범한 장로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먼저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14절 상).

평범한 장로였기 때문에 장로가 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장로들은 병든 사람들이 저들을 초청할 때 저들에게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저들이 했던 전부였습니다. 다만 저들이 기도하기 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는 왜 장로들이 기름을 발라야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14절 하)고 언급하였습니다. 장로들이 병든 곳에 기름을 발랐던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장로들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름을 바를 때 '주의 이름으로' 발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치유를 행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기름을 발라야만 치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를 때 병든 자는 왜 기름을 바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형식적으로 기름을 바를 때에는 당신이 왜 기름을 바르는지에 대해 병자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기름을 바르던 안 바르던지간에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말을 병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병자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력한 치유의 능력이 있고 유창한 말솜씨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짜 장로'입니다.

오늘날 장로들 중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장로의 성스러운 직분이 목사의 먹살을 잡는 것인줄 알고 있는 장로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월급을 주는 일이 자신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멋진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이 나타날 때는 죽은듯이 숨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아는 병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부인 장로들

이 있습니다. 이런 장로들은 모두 '가짜 장로'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장로들은 모두 기름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름병'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기름병을 가지고 다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은 항상 영적인 말을 들을 때 육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장로들은 기름병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사용했던 기름은 '올리브기름'이었습니다. 올리브는 성스러운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기름보다 훨씬 좋은 기름이 있지만 이스라엘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은 올리브 기름병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든 자가 있을 때에 올리브 기름을 발랐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올리브 기름 자체가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처난 곳에 올리브 기름을 발랐습니다. 올리브 기름 자체에 상처를 치

유해주고 병균을 막아주거나 죽이는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미용에도 탁월합니다. 가구를 오래 보존하는데도 매우 좋습니다. 음식 재료에도 아주 귀합니다. 오늘날 주부들에게 있어서 올리브 기름은 매우 좋은 식용유입니다.

만일 당신이 교회 장로라면 반드시 질병에 걸린 자를 치유해야 합니다.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장로로 세웠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당신이 치유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병든 자를 찾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병든 자가 치유될 것입니다.

[약 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약 5: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약 5: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약 5: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15절 상)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15절 하)고 말하였습니다. 야고보의 말은 매우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이 말 속에는 죄를 통해서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질병 중에는 다소 죄를 통해서 생겨나는 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는 치유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일방 병원의 의사들도 때때로 환자의 죄를 듣고자 합니다. 이는 죄로 인해 병이 생긴다는 것을 일반 의사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16절 상). 야고보는 '서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은 치유자와 질병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은 단순히 질병자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치유자도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는 치유자가 치유에 앞서 보다 정결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자가 정결치 못하면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자와 질병자가 서로 죄를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하다'라는 말은 <엑소몰로게오>입니다. 이 단어는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 전치사와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뜻하는 <호몰로게오>의 합성어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항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속에서 맴도는 고백은 진정

한 고백이 아닙니다. 반드시 서로의 고백은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16절 하).

야고보는 어떤 것이 의인의 간구인지에 대해 예를 들었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 중 하나로 예를 들었는데 엘리야가 우리와 똑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3년 6개월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 하늘이 비를 내려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17-18절). 엘리야가 기도를 하면 하늘의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오게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엘리야를 가리킬 때 "우리과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되"라는 말을 집

어 넣었던 이유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고보는 당신도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드리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약 5: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약 5: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의 또 다른 놀라운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형제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 중에는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지금처럼 그 때에도 성도를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듯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세상에 빠져 있는 죄인된 형제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20절 하). 물론 사망에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십니다. 지옥 갈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러한 역사를 이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금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형제의 허다한 죄가 덮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20절 하). 형제의 허다한 죄는 곧 예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진리를 떠난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허다한

죄를 사하시고 덮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사망할 형제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의 기도로 형제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야고보서

초판발행	2026. 7. 8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 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국제 신학교

꿈을향여신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위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비드 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